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진각종 탐주심인당 사조마니회

관심보다 큰 힘이 있나요?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찾는 진각종 탐주심인당 '사조마니회' 회원들. 사진은 3월 19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성준과 혜찬.

맑고 시원한 물과 공기를 자랑하는 수락산. 돌보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2001년부터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락산 자락 서울시립노인요양원(원장 김우탁)에 모여 살고 있다. 등산객은 많으나 시설을 찾는 이는 없어 적적하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매달 셋째 토요일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진각종 탐주심인당 소속 사조마니회(조장 손양미) 회원들이 있어 한결 외로움이 덜어진다.

완연한 봄기운에 수락산 나무들이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3월 19일에도 여덟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조마니회 회원들. 이들의 봉사활동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여기 와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이 사소한 일들을 챙기지요. 말도무도 해드리고요."

손양미 조장이 말하듯, 사조마니회가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다. 그렇게 회원들은 요란하지 않은 가운데 할머니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부심도 뿌듯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시원하시지요?"

이날 봉사활동을 하는 엄마를 처음 따라왔지만 낯선 할머니들에게 꼭 친손자 처럼 곧잘 말도 걸고 안마도 할 줄 아는 성준(7)이와 혜찬(6)이의 모습을 보며 혜찬이 엄마 오명자(36) 보살은 "아이가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 대견스럽다"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그렇게 한달에 한 번, 토요일 이후의 나른함을 공유하는 사조마니회 회원들의 모습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찾는 것도 소중한 봉사 활동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지속적인 만남 필요해요

서울시립요양원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쌀 등의 물품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꾸준한 손길과 관심이다. 사조마니회 조장 손양미 보살은 "할머니들이 사람을 많이 그리워한다

고 해서 일회성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한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꾸준히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복지들의 관심과 방문을 호소했다. (02)939-6176

“자비의 등 밝히기는 나눔의 시작”

우리는 선우, 본사와 장충단공원에 5천등 켜다

“자비의 등 밝히기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사)우리는 선우(대표이사 성태웅)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김광삼)은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장충단공원에 자비의 등 5000개를 밝힌다.

올해 14번째인 '자비의 등 밝히기' 행사는 나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불사. 보시금 전액을 소외받고 있는 이웃돕기와 장애우 나들이 행사에 사용된다.

등은 신신의 건강을 기원하는등, 몸과 마음의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쾌유를 비는 등, 모든 인연의 도움에 감사하는 등,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등이 있다. 또 복된 삶을 기원하는 행복 등, 가정 국가 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평화 등, 학업 직장 사업의 성취를 기원하는 성공 등, 지난 노력의 결실을 맺도록 기원하는 합격 등,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 등

등 총 9가지이다. 이웃을 위해 등을 신청하면 우리는 선우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예쁜 카드도 상대방에게 직접 발송해준다.

등 보시금은 일반인이 1만원, 대학생 5000원, 중고생 3000원, 가족등 3만원, 대원등(큰등) 10만원이다. 등 접수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우리는 선우(sunwoo.or.kr)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02)2278-8672-3

우리는 선우 성태웅 대표는 "부처님 오심의 참 의미를 깨우치고 그 뜻을 나누어 내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로서 사회 회향의 종교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웃을 위해 등을 달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우리는선우와 현대 불교신문사는 올해도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의등 5000개를 밝힌다. 사진은 2004년 점등식 모습.

“열심히 공부할게요”

강북장애인복지관 장학금 전달

“어려우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은 3월 22일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 가정 청소년 10명에게 1사분기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1년에 4차례에 걸쳐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1사분기 장학금은 광운대 총동문회로부터 100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10만원씩 지급했다.



그 동안 장학금을 받아온 장애청소년 김민(20)군이 올해 삼육대 약학과에 입학하는 등, 강북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금액 이상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 (02)989-4215 김강진 기자



“그림 보며 치매 치료해요”

성북노인복지관 갤러리 나들이

“그림 참 좋구먼.”

10년 만에 갤러리를 찾은 이원복(79) 할아버지가 이원종 화백의 작품 '제주에서의 중도(2001)' 앞에 서서 감상에 젖는다. 다른 쪽에서는 현희자(80)할머니가 그림 속 제주도 풍경을 보며 젊은 시절에 갔던 제주도의 기억을 떠올린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숙)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1명의 노인들이 3월 18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이원종 화백의 '꿈과 일상의 중도'전을 관람했다(사진). 노인들은 한달에 한 번 있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현실감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성북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사회기술훈련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치매 노인들의 치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02)929-7950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념과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배달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은 본사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시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 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불기 2549년 마하몰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체 봉축용품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 사찰용 연등전선 (범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귀족을 부처님처럼 부처님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 X 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 봉축리본 세트 · 일 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 100개 1세트 (공통)
■ 연꽃리본 · 25,000원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벌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차량용 깃발 · 4,000원
■ 만지기/법륜기/불고기 · 20,000원 * 다른 사이즈 제작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 4개 1세트

■ 봉축 버튼 · 4,000원 * 10개 1세트

연 등

- 공단등 · 大-23,中-18,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 빨강,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등 · 32cm X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 초록,색상별
- 황금연등 · 20인치,13인치, 10.5인치, 8인치,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성유 사용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 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속고사, 프라스틱 · 고급분염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종등 · 40cm X 27cm · 노랑,연두,분홍, 빨강,오렌지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 초록,파랑
- 만월등 · 32cm X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 비단팔모접등 · 28cm X 24cm · 분홍,노랑,초록, 빨강,파랑
- 팔각조립등 · 26cm X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분홍,빨강, 봉축노랑,성도발달성도일노랑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